

예술 담론 속에 나타난 창조주와 창조세계의 이미지

오 의 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I. 서론

본 논문은 예술의 담론으로 표현된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비유와 그 이미지에 관한 연구이다. 흔히 창조자와 창조세계에 대한 논의와 담론은 신학자와 과학자들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창조론 과학자들 중에는 창조세계에 대한 그들의 연구와 발표를 하나의 사명으로, 적어도 신앙을 가진 과학자로서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창조과학의 입장에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지만 특히 진화론의 오류와 허구성을 지적하며 반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분석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가 있으며 성경의 말하는 창조세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

이와 달리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예술적 담론은 창조론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이성적 접근이나 합리적 탐구와 접근의 방법이 다르다. 예술적 담론은 감성적인 인식과 진술에 기반 한다.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과 이해를 요구하기 보다는 심정적 동기가 우선하는 접근이다.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비유로 나타나며, 그 결과 매우 친숙하고 쉽게 다가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 담론들을 통해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최고의 예술가로서 고백되고 서술되는 창조주의 풍성한 면모와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는데 있다. 논문에서 다루는 에디스 쉐퍼, C. S. 루이스, 래비 재커라이어스, 폴 투르니에, 마크 헨비의 저서에 나타난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비유적 담론들을 통해서 창조주와 창조세계를 깊이 있고 폭 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토기장이와 흙, 질그릇이 비유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된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적실한 통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최고의 예술가'로 고백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진술 안에 담길 수 없는 크고 광대한 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고를 통해서 최고의 예술가 됨에 대한 각론들을 살펴보는 것은 최고의 예술가 됨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성한 이해를 통해 창조주에 크고 광대함에 접근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 작은 소고를 통해서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진실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이나 몇 가지 위안을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기록 속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수많은 비유적 수사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목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고백하고 표현한 예술 담론들도 그래서 살펴볼 가치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고 종합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최고의 예술가, 뛰어난 기술자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골 1: 16)(E. Schaeffer: 21)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L. G. 파커스트(Parkhurst)가 편집한 에디스 쉐퍼의 명상집의 제목

이다. 위에 인용된 글은 에디스 쉐퍼의 저서 『숨겨진 예술』(Hidden Art)에서 발췌된 글이다. 에디스 쉐퍼는 그의 책에서 창조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완벽한 예술가, 즉 기술이나 독창성이나 과거와 미래를 이는 일에서나 여러 방면의 숨씨에서 완벽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표현해야 할 내용을 완벽하게 갖고 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경이로운 점들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예술가가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뿐이라고 말한다.(E. Schaeffer: 21)

에디스는 쉐퍼는 이 책의 또 다른 장에서 하나님을 뛰어난 기술자, 최상의 기술자로 비유하며 인간을 조율과 음조정을 받아야 하는 악기로 설명한다. 마치 음악회용 그랜드 피아노 기술공이 악기를 조율하여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맞추어 깨끗하게 작품을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예로 든다.

뛰어난 기술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율하셔야 하며 음조절을 하셔야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또 거칠은 음색을 걸러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악기로서 우리가 지닌 음색에 맞는 적합한 일을 맡아야 할 뿐 아니라 악기로서 우리가 지닌 아름다운 소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야 합니다.(E. Schaeffer: 138)

우리를 악기로 비유하는 에디스 쉐퍼는 우리가 원래 내도록 되어있지 않은 소리를 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거문고인 사람이 대금이 될 수 없고 비파인 사람이 장구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결코 이미 완성된 제품이 아님을 강조한다. 피아노가 뛰어난 기술공의 숨씨 있는 도움을 계속 필요로 하듯이 언제나 우리의 조력자이시며 주님이신 창조주의 도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부여지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숨겨진 약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이처럼 조율과 도움을 통해 회복되고 온전해 지는 과정을 에디스 쉐퍼는 저서의 다른 장에서 '파괴된 미술관의 복원'으로 설명한다.(E. Schaeffer: 21)

1. 조각가와 작업실

C. 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한 조각가'라고 말하면서 창조세계(세상)를 그 조각가의 작업실(스튜디오)로 비유한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주가 만든 조각상으로서 그 가운데 일부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Lewis: 248)

창조주의 창조행위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의 원형이고 모상이다. 성경의 인간 창조기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오늘날 조각가의 작업실을 떠 올리기에 충분하다. 연구자는 1992년 테라코타 전시의 작가 노트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조각가들이 흙으로 창작하는 모습에 따라서 성경의 인간 창조기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간 창조 기록에 맞춰서 조각가의 창작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오의석, 1992: 6-7)

루이스가 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조각에 주목하고, 창조주를 위대한 조각가로, 세상을 조각가의 작업실로 비유한 이유는 허버트 리이드(H. Read)가 말한 것처럼 조각이 3차원의 입체를 만

드는 예술로서 공간 점유의 방식을 갖는 실체적이고 촉각적인 예술형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인간 창조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흠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 넣은 창세기의 기록이나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다’는 욥기의 기록¹⁾에 근거해 볼 때, 지상의 예술가들 중에서 조각가만큼 창조주 모습을 그려내기에 적실한 예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오의석, 2013, 예서원: 48)

루이스가 세상을 미술관이나 전시실로 이야기 하지 않고 작업실로 비유하고 있음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작업실의 비유 속에는 창조주의 창조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진행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작업실은 작품이 제작되고 진행되는 현장인 것처럼 지금도 창조주의 작업실에서는 수많은 조각 작품이 빚어지고 있다. 월터스(A. M. Wolters)는 창조의 진행성에 관련하여 창조란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정적인 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고 개발되는 것으로 그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문화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오의석, 2013, 학위논문: 9)

인간 문화의 광대한 전 영역은 진화의 변덕이 빚어낸 임의적인 변종들로 이루어진 장관도 아니고 자율적인 자아가 창조적으로 이룩한 영감의 파노라마도 아니다. 그것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창조주)의 경이로운 지혜와 우리의 임무가 이 세계 안에서 갖는 심오한 의미를 드러내 준다. 우리는 하나님(창조주)의 계속되는 사역에 참여하며 창조주의 걸작을 위한 청사진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그분의 조력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Wolters: 55)

창조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것으로서 인간에게 준 문화명령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 이러한 사실은 창조주의 창조가 갖는 원형적 의미와 함께 인간 창조 활동에 대한 가치를 밝혀주고 있다.(오의석, 2013, 학위논문: 10) 인간이 창조주의 발전적 창조에 조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에 부여한 은혜이고 선물이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한 논문에서 루이스의 ‘조각가 작업실 비유’에 월터스의 견해를 덧붙여서 보완해 본다면 ‘- 생명을 얻은 조각상 중 일부는 위대한 조각가의 조수로 일하고 있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의석, 2013, 예서원: 49)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의 인간 창조가 갖는 위대함이고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피조물인 작품을 조력자와 동역자로 인정하고 불러서 사용하는 매우 특별한 조각가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



[그림1] 크리스토, 달리는 울타리, 1972-1976, 길이 39.5km

1)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제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10: 8,9)

라 창조주는 자신의 조수들 작업에 조력자와 동역자가 되어 일하기도 한다. 자연의 재료와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대지미술, 자연미술, 환경설치 작업에서 창조주는 기꺼이 조수들의 작품에 협력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바람과 불과 햇빛 등 조수들이 필요한 것들을 무상으로 전달하며 공급함으로써 작업의 진행을 돕는 것이다.(오의석, 2013, 예서원: 49) 더욱 놀라운 것은 창조주의 일반은 좋은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곧 생명을 얻지 못한 조각상들의 작품과 작업에도 차별이 없이 도움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대지예술가(Land Artist)

창조의 진행을 확인하고 소개하는 연구로서 조각 감상의 방법론에 관한 한 논문에서 이성도 교수는 일체의 자연을 하나의 조각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퇴적과 침식을 거듭하는 자연의 모습을 하나의 조각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쌓여져 가는(퇴적) 모습을 소조적인(modeling) 방법에 의한 조각으로, 비바람에 깎여져(침식) 나가면서 이루어진 기암괴석은 조각적인 작품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산하대지(山河大地), 기암괴석(奇巖怪石), 다양한 수목 그대로를 조물주 [창조주]가 만든 작품으로 바라보면서 경탄한다(이성도, 1998, p.180) 지구의 표면에 일어나는 현상을 조형적 차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감상하는 이와 같은 접근은 창조주를 거대한 스케일의 대지예술가(Land Artist)로 인식하게 한다.



[그림2] 중국 운남성 석림(石林)

대지미술(Land Art)은 1960년대 후반 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성행했던 미술 경향으로 'Earth Art'라고도 불린다. 대지미술은 두 가지 주요 관심을 표명하는데, 첫째는 미술의 상업화에 대한 반대이고, 둘째는 당시에 시작된 환경운동에 대한 지지이다. 환경운동은 '땅으로 돌아가자(back-to-the-land)'라는 반도시화(反都市化)의 구호와 함께 지구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킨다. (오의석, 2015: 49)

대지미술의 작업 유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흙과 암석 등의 자연재를 현장에서 화랑에 옮겨와서 설치 전시하는 유형이며, 둘째는 자연환경의 현장을 절단, 굴삭, 집적하는 형식이고



[그림3] 그랜드 캐년



[그림 4] 마이클 하이저, 1969-70, <더블 네가티브> 버지니아 리버 메사, 미국 네바다주

셋째는 대지 환경공간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의 상태를 의미 있는 장(場)으로 변형하는 경향이다. 이처럼 대지미술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촉발되어 조형 예술의 영역의 확장과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지예술가들은 자연을 관조나 관찰 표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 속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자연 현상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작업을 통해서 자연을 의미체로 변환시킨다.

대지예술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연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적극적이며 친화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다. 자연을 두려움이나 섬김, 반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자연을 조형작업을 위한 관조, 관찰, 표현의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연을 작품의 일부로 수용하고 의미 있는 조형체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중에도 대지예술 작업을 통해 나타나는 대지예술가들의 자연관은 서로 상이한 시각을 드러낸다. 자연을 정복과 개척의 대상으로 다루는가 하면 순응과 상생, 또는 회복의 돌봄의 대상으로 다루기도 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1960-70년에 이루어진 대형 프로젝트형 대지예술은 계획안과 사진 영상 자료들과 기록에 의해서 그 모습을 알 수 있다. 수년에 걸쳐서 기획되고 제작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재료와 장비가 투입되지만 설치 완성 후 전시기간은 매우 짧다는 특성을 가진다. 작업의 결과는 자연의 물리적 현상에 의해 변화하고 작가들은 이런 변형과 소멸의 과정까지 작업의 일부로 수용함으로써 과정미술(Process Art)이나 퍼포먼스, 이벤트로서의 특성과 한계를 갖게 되며 그 기록에 의해서만 작업의 성과는 보존되는 것이다.



[그림5] 오의석, 춘하추동-봄뒀(春山) 골짜기에서



[그림6] 오의석 대지예술-사진,영상, 설치전, 2014 인터불고갤러리

대지미술의 실천적 사례로써 연구자는 과수 농사와 종묘와 같은 산업을 예술과 융합하고 그 산출물들을 유통 시스템과 감상자 참여의 과정을 통해 나누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는 이와 같이 소모적인 대형 프로젝트형 대지예술 양식에 대한 반성적 대안으로 제시해 본 사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지미술의 체험적 연구는 노동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비유된 창조주의 창조성을 체험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청중하는 현장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창조주와의 동역적 체험 속에서 창조주의 대지 작업이 갖는 거대(무한) 지평을 경험하고 상상해 보기 위한 작업이며 연구였다.



[그림7] 오의석, 접목-대지예술 이미지, 2014, 경산 종묘단지

3. 키네틱 아티스트(Kinetic Artist)

대지, 곧 지구의 지표로부터 지구가 위치하는 공간, 태양계와 은하계, 더 넓게는 우주 공간으로 시선을 돌리고 작은 별 지구의 운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행성 위에서 있는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키네틱 조각의 구조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기준 시속 1,667km에 이르고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7,160km, 음속의 87배에 해당하며, 초속으로는 약 30Km, 총알만큼 빠른 속도이다. 인간의 감각으로 그 빠른 속도감과 소리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잊고 지내지만 지구상의 온 인류는 작은 캡슐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인류가운데 선택된 소수의 조각가들이 고안하고 창작해 낸 다양한 형식의 움직이는 키네틱 조각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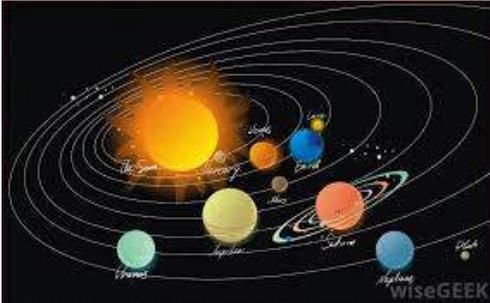


[그림8] 나움 가보, 회전체,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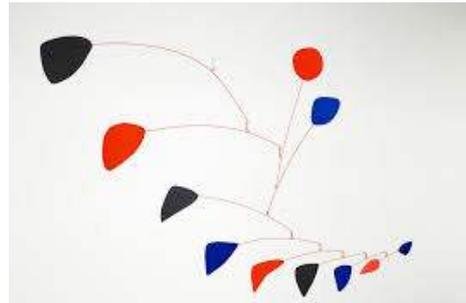
현대 조각사에서 키네틱 조각은 20세기 초에 시작된다. 구성주의자 나움 가보(Naum Gabo)의해 전동모터를 단 움직이는 단순 구조체가 1920년에 제작되었고 이처럼 동력을 이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가진 작업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나단 브롭스키(Jonathan Borofsky)의 <망치질 하는 사람, Hammering Man>이 대표적인 좋은 예로 서울과 동경, 시애틀 등 대도시에서 지금도 작동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키네틱 조각의 다른 예로는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모빌을 시작으로 바람과 물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작품들이 있는데 미국의 조각가 조지 릭키(George Rickey), 일본 조각가 스스무 신구(Susumu Shingu)의 작업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작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갖는 작업들도 감상자의 참여형 작품으로 한 경향을 형성한다.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작업들은 작가의 고안과 창조주의 동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분명한 것은 움직이는 작품의 총체적 원형이 이미 해와 달과 별을 빛은 창조주의 설계와 고안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자전하면서 공전의 궤도를 가지고 운행하는 행성 지구와 태양계는 이미 한 점의 거대한 키네틱 조형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오의석, 2001: 248) 이러한 시각에서 대지미술을 비롯하며 지상에 세워진 모든 조형물들은 한 장소에 고정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외 없이 지구의 운행과 함께 회전하며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 대지와 지구, 자연과 우주에 대한 이러한 탐색은 인간의 창조행위가 창조주의 창조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창조 작업에 조력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준다. 이런 점에서 루이스가 세상을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로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명이다. 세상은 그의 작업실로서 창조주의 창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창조된 조각품의 일부는 생명을

얻고 창조주의 창조에 동참하는 조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9) 태양계 (Solar System)



(그림10)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
빨강 파랑 검정 - 폭포

특히 루이스가 창조주의 조각품으로 언급한 인간 역시 움직이는 활동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매우 정교하게 고안되고 조직된 키네틱 조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운동성이 끝날 때 인간다움을 상실하며 결국 심장의 멈춤과 함께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다. 이와같이 인간의 몸이 갖는 박동의 힘과 행성운동의 힘은 창조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점에서 창조주를 거대한 키네틱 아티스트로 접근하고 바라보는 일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Ⅲ. 위대한 장인

1. 섬유예술가의 직조

레비 재커라이어스(Ravi K. Zacharias)는 그의 저서 『위대한 장인(Grand Weaver)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위대한 디자인을 마음에 품고 모든 실타래를 동원해서 명품을 만드는 직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직조하는 실타래들로 일곱 가지²⁾ 요소를 들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분은 모든 실타래 들을 엮어서 거대한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모든 실타래 들이 중요하며 독특한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루이스가 창조주의 조각작품으로 ‘인간’을 이야기 한 반면에 레비 재커라이어스는 인간이 빛어가는 삶으로서 인생을 이야기 한다.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의 개성이 담긴 경이로움과 비범함을 받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흠이 있는 것이든 ‘우연한 것’으로 보이든 말이다. 그런 개성을 주신 분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당신의 유전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당신을 고안하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당신의 개성에 담긴 모든 소소한 것들도, 부수적인 것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에게 새겨 놓으신 흔적이기 때문이다.(Zacharias: 38)

재커라이어스가 말하는 실타래 중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이다. 그는 책에서 유전자 가닥의 단면도 이미지를 소개하면서 유전자 디자인의 세밀함이 곧 초월자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

2) 레비는 이책에서 고통, 소명, 도덕성, 의지, 예배, 영성, 운명을 실타래로 다루고 있다.

간이 초월자 (창조주) 의 고안물인 동시에 초월자의 요소를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놀랍도록 실증해 주고 있었다고 말한다(Zacharias: 40) 우리 인생의 직조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로 인간의 유전자를 들고 있음과 동시에 그 유전자의 구조와 구성 또한 최고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³⁾ 그가 강조하는 유전자의 영향에 관한 진술의 진의는 우리 인생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독특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독창적인 설계 과정을 인정할 때 각자의 삶 속에 창조주의 위대한 작품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 창조주의 위대한 디자인 안에서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필연적으로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진이 완성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자신의 개별성에 대해서 건강한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Zacharias: 43)



[그림11] Human DNA 구조 이미지

당신 자신의 개성이라는 실타래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에 담긴 위대한 장인의 디자인을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당신은 그저 숫자가 아니다. 그 분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인생의 모든 걸음이 그림처럼 멋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요소마다 초점이 있고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법이다.(Zacharias: 43)

인생의 모든 걸음이 그림처럼 멋있지 않을 것이란 말에서 우리 인생을 직조해가는 장인의 두 번째 실타래인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 제커 라이어스는 고통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고통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 고통이 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당신의 상처와 실망은 당신의 마음과 현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 양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분의 디자인의 일부분이다. 당신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고통들이 언제나 당신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는 단언하면서 그가 놀랍게 생각하는 성경의 한 구절로 구원의 주님 자신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히2: 10)는 말씀을 소개한다.

고통은 인생을 이어가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실망과 고통과 좌절의 아픔은 부족한 인간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영역이다. C. 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한다. 그의 표

3)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담당자이자 인간유전자 지도의 공동 작성자인 프랜시스 콜린스의 강연에서 3억개 이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생명체의 명료성과 천재성을 역설하면서 보여준 한 저자에게 그 사진은 숨 막힐 듯한 아름다움 그 이상이었으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이었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압도하는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한다.

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고통 중에만 들리는 말씀이 있고, 고통의 현장에서 듣는 말씀은 그 만큼 또렷하고 강력한 말씀이 된다. 고통은 왜곡된 세상 속에서 부족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에서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다시 제기되고 다루어진다.

2.. 토기장이와 질그릇

마크 헨비(Mark Hanby)는 그의 저서 『토기장이 하나님』에서 우리가 창조주의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과 도자기가 토기장이의 돌림판 위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유사함을 설명한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돌림판 위에서 우리 모양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동안 우리는 돌림판 위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함으로써 창조주의 작품으로 완성될 수도 있고, 돌림판에서 튕겨져 나감으로써 창조주의 뜻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Mark Hanby: 6)

그리고 하나님의 돌림판을 보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바퀴의 발명은 인간이 행한 최초의 창의적 활동에 속하며 토기를 만드는 돌림판이 축과 굴레를 사용하는 바퀴의 기원으로 가장 앞선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무언가의 주위를 돌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바퀴의 원리에 의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한다.(Mark Hanby: 13)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처럼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지구 위에 놓여 있다. 지구의 회전은 자전과 공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회전하는 소리가 인간의 가청 주파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전혀 어지러운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설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의석, 2013, 예서원: 64)



〔그림12〕 토기장이의 손

이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창조주의 거대한 돌림판 위에 존재하는 작은 흙덩이와 같은 존재로 의식하게 한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진흙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돌림판 위에 놓인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지는 작품의 재료라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작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토기장이 창조주의 손에서 빚어져 가는 재료로서 우리는 그의 돌림판 위에서 원심력을 견디고 그 손의 압력을 감내해야 한다.

마크 헨비는 하나님의 돌림판을 바라볼 때 시련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고 압력을 가하심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도

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까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돌림판 위에서 어떤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지는 오직 그 분 만이 아신다는 것이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분은 완성품의 모습을 이미 아신다고 말한다.(Mark Hanby: 20)

토기장이의 비유는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우리 인간을 토기장이의 손으로 빚어지는 진흙과 그릇으로 비유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창조주에 대한 담론으로 외견상 매우 소박해 보인다. '위대한', '최고의' '탁월한' 등의 수식 붙지 않으며 도예가라는 영예도 주어지지 않는 도공 또는 장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재료인 진흙과 그의 작품 질그릇이 빚어지는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엄중하고 진지한 내용이다.⁵⁾(오의석, 2013, 예서원: 61)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피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고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렘 19: 5-10절)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토기장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으로 어떤 사랑을 높이고 세우는 것,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간섭하거나 항의 할 수 없는,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린 것으로 그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다 또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거나 세우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서택: 133)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 받는 두 번째 사실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 안에서 진흙임을 인정하고 그의 손에 붙들릴 때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을 터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김서택: 134)

진흙이 제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진흙에 불과 합니다. 진흙이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자기 능력을 다 포기하고 망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의 손에 부서진 그릇도 토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시므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최고의 작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김서택: 135)

흙이 명품의 그릇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채토의 과정으로 흙은 땅에 묻혀

4) 이사야 29: 16, 이사야 45: 9, 64:1, 29: 16, 로마서 9: 20 - 24

5)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음 받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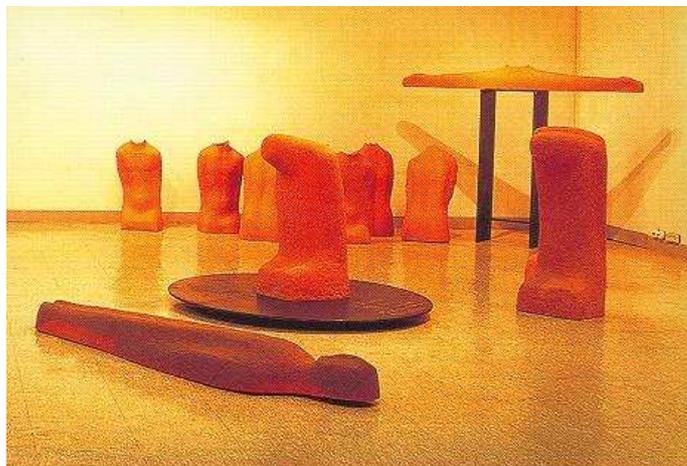
있는 상태에서 떠나 떠나져야 한다. 그리고 수비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거르고 정제되어야 하며 다음 이겨지고 성형을 위해 적절한 상태로 반죽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장인의 손에 붙들려 형태로 빚어지고 오랜 시간의 건조를 거쳐 마지막 과정으로 불가마에서 소성의 과정을 겪는다. 이처럼 성형된 토기가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과정은 건조 후에 들어가는 가마에서의 소성이다. 소성을 통해서 토기는 수분과 불순물이 제거되고 견고해 진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면서도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 시험을 보내거나 허락하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 키질을 하고 불로 태우듯이 그 분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성화를 이루어간다.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 오히려 제대로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불의 압력과 열기가 우리를 그분의 목적과 영광으로 이끌어 간다. 이처럼 시련과 박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온다.

연구자는 1992년의 테라코타 작품전 '흙, 사람 불- 인간창조의 원형과 그 미래에 대한 조형적 탐구-에서 인간의 체질된 흙으로서의 재료와 가마에서의 마지막 소성과정을 흙 된 인간의 체질과 인간에게 임할 섭리적인 불에 의한 심판으로 비유하며 서술하였다.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빚는 조형 행위는 성경에 뿌리를 둔 것으로 모든 조각 행위의 원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흙으로 사람을 빚는 작업을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닮은 창조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조성할 때 이미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조각가의 창조력을 통해서 그 많은 인간의 형상들이 흙으로 빚어져 왔다는 사실이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는가? --- 조각가들이 행하는 흙 빚음의 창조적 조형활동을 통해서 창세기의 기사는 인간 창조의 원형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조형창조의 근원적 힘은 바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다는 복됨과 영광에서 비롯되고 있음도 확인된다.(오의석, 1992, pp.6-7)

그러나 조각의 역사 속에서 조각가의 창조력은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많은 실패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과 금송아지의 사건이다. 이 둘은 인류 문화의 도전적 성향과 불순종의 의지를 대표하는 조형물로서 성경의 기록 속에는 토기장이 되신 분의 진노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조형의 실패를 보면서 갖게 되는 긴장과 두려움을 흙을 불에서 굽는 테라코타 작품의 소성 때 더욱 절실히 체감할 수 있다. 소성을 통한 정화의 과정을 불로 작품에 대해서 가해지는 시험으로 보면서 연구자가 가마 속에서 작품을 시험하듯이 연구자



(그림13) 오의석, 테라코타 군상,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외 10점, 1992. 맥향화랑, 토 아트스페이스 개인전

의 작업과 삶의 모든 열매도 그 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임을 소성의 과정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흠을 불에 굽는 테라코타 작품은 흠으로 빚어진 인간 창조의 원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차 불로 시험될 인간의 미래적 운명까지도 더불어 예언해 주는 성경적 조형언어라고 밝혔다.(오의석, 1992: 7)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할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이고 우리가 점토라는 사실이다 토기장이의 돌림판 위에서 그리고 가마 안에서 우리는 압력과 열기를 견뎌오면서 비로소 그릇이 되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돌림판과 가마 안에서 빚어진 우리는 질그릇⁶⁾과 같은 존재로 여전히 깨어지기 쉽다. 그 체질이 여전히 진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 7)

3. 탁월한 지휘자의 연주

세계 정상 베를린 필의 초대 지휘자로서 리스트와 바그너의 제자이며 지휘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빌로(Hans von Bülow)는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그저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세르주 첼리비다케는 “좋은 지휘자, 나쁜 지휘자라는 것은 없다. 나쁜 지휘자는 이미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두 지휘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오의석, 2013, 예서원: 53)

폴 투르니에는 그의 명저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인생은 거대한 모험이며 그 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 이라고 말한다. 모험에는 늘 위험이 있고 위험의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모험의 묘미는 이런 위험의 부담에 있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모험을 두려워하며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바란다. 그러나 폴 투르니에는 모험을 인간 특유의 본능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모든 시대가 모험이고 모든 삶이 다 모험이다. 아이들이 받는 선물과 놀이가 다 모험이고, 특히 창조적인 화가에게 모든 그림이 다 새로운 모험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모험 본능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모험가라고 말한다. 특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모험이었으며 자연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인간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기술의 진보라는 대모험 속에 인간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심어 놓은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모험의 정신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모험이며, 모든 모험에는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출생과 죽음, 젊음과 늙어 감은 물론이고 일상의 소소한 선택들까지도 작은 모험의 연속인 것이다.(오의석, 2013, 예서원: 52)

앞장에서 에디스 쉐퍼가 인간을 악기로 비유하면서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자인 창조주에 의해서 늘 조율되어야 할 존재로 서술한 반면, 폴 투르니에는 인간을 연주자로서 보면서 그 연주를 이끌어 가는 지휘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청각예술의 현상이지만 인간은 소리를 내는 악기에서 연주자로, 창조주 하나님은 조율사에서 지휘자로 그 이미지를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 속에 자신을 맡긴 이들의 연주에 의해서 변화되고 진전된다. 성경의 기록 속에서도, 갈 곳을 알지 못하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본토와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아 나선 어부들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 속에 자신의 삶을 밀어 넣은 이들에 의해 세

6) 질그릇 조각 같은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룰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사 45: 9)

상은 바뀌었고 역사는 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인생 역사 속에서도 가슴에 품고 갈 만한 기억에 남는 것은 모험적인 선택이고 사건들이다. (오의석, 2013, 예서원: 52-53)

폴 투르니에의 주장에 의하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두려움을 직면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모험에 탁월한 지휘자가 된다. 그가 지휘하는 모험에 우리를 맡길 만한 것은 그가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으며,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과 강함과 두려움과 못된 기질과 성품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휘자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의 삶은 혼자서 행하는 독주가 아니며 우리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연주는 솔로가 합주이며 협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과 자리에서부터 자신이 희망이나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의 선택이기보다는 누군가의 기획과 지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오의석, 2013, 예서원: 53)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행하는 연주이며 하나님의 지휘에 맞춘 연주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탁월한 지휘자이고 인간은 연주자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모험의 연속이면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탁월한 지휘자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IV. 요약 및 결어

예술담론 속에 나타난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비유와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최고의 예술가로서의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언어와 서술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창조주를 표현하는 고백과 서술의 하나일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다양한 예술 담론을 통해서 '최고의 예술가' 됨에 대한 각론들을 살펴봄과 비교하고 종합하는 연구를 통해 최고의 예술가의 면모를 더욱 풍성히 드러내고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C. S 루이스는 하나님은 위대한 조각가로 말하면서 인간을 그가 만든 조각 작품으로, 그리고 세상을 조각가의 작업실로 이야기 한다. 작업실이란 표현에서 우리는 창조의 진행성을 유추해 보았고, 조각가의 조각 작품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단순한 작품에 머물지 않고 조각가의 작업을 돕는 조수와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았다. 인간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연과 대지를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거대한 스케일을 다루는 대지예술가로서 지구를 가꾸고 있는 모든 대지예술 작업의 원형을 보여주면서 지상의 대지예술가들의 작업에 빛과 바람과 물 등의 자연조건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반면에 하늘로 눈을 돌려 우주의 운행을 살펴보면 창조주는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 전체를 거대한 키네틱 조형체로 구상하고 설계하셨으며 지금도 불등고 운행하고 있음을 보며 창조주를 키네틱 아티스트로 시인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자연을 조성할 뿐 만 아니라 인생을 빚어가고 이끌어 가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래리 잭커라이어스는 창조주를 위대한 장인, 곧 오늘날의 섬유예술가로 비유한다. 그는 우리 인생을 조성하고 형성하는 실타래로 7가지의 요건을 들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가 앞서 제시하는 유전자와 고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전자는 그 자체의 구조가 경이로운 짜임새를 가지고 있음도 흥미롭거니와 우리 인생을 각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형성해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감을 이야기 한다. 이 고통의 담론은 마크 헨비와 성경이 말하는 토기장이의와 질그릇의 비유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마크 헨비는 그릇의 재료인 흙덩이가 물레의 회전력과 장인 손의 압력을 고통으로 보면서 견디어 내야 하는 것임을 환기시킨다. 연구자는 테라코타 작품 창작과 전시를 통해서 가마의 열기에 의해 소성되는 과정을 고통의 의미와 시험과 심판의 의미로 해석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장인의 마지막 이미지로 폴 투르니에는 우리 인생을 모

힘 속에 몰아가는 지휘자의 이미지로 비유한다. 여기서 인간은 물론 그 지휘에 모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연주자가 된다.

예술 담론 속에서 살펴본 이상과 같은 비유와 이미지는 각기 창조주와 세상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적실하게 드러내 주는 반면에 그 전체적인 통합의 그림은 창조주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술적 담론은 예술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그들을 격려한다. 창조주를 다양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담아낸 예술 담론 속에서 작가들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가 심어놓은 창조성을 발휘하고 동역하는 창조적 삶에 대해서 충분한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예술적 담론의 현장에 관련되어 산다. 그들은 작품과 작업 속에서 창조주를 소유하기 원하는 이들로서 창조 세계의 원리와 질서와 비밀을 깊이 이해한다. 그런 만큼 책임 있는 존재로 자신을 자각한다. 그러나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조수로서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은 그들의 마음은 더욱 부풀게 하고 높아지게 할 수 있다. 교만의 위험이 크리스천 작가에게 여전히 있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클 수도 있다. 크리스천 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토기장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진흙이며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부분의 예술 담론 속에서 창조주가 높고 크고 탁월한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토기장이의 이미지는 매우 소박한 인상을 준다. 오늘날 도예가나 세라믹 아티스트로 불려질 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도공에도 못 미치는 토기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세상을 돌림판과 소성 가마로, 우리 인간을 진흙과 빚어져가는 그릇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부드럽고 친숙해 보이는 이 비유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은 질그릇 된 인간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체질과 연약함을 확연히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토기장이 앞에서 질그릇 된 우리 인생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요구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이사야 64:8)

일찍이 F. A. 쉐퍼는 크리스천의 삶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예술 작품은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술작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쉐퍼의 통찰과 함께 토기장이의 비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돌림판 위에서 빚어져 가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성찰하며 돌아보게 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예외 없이 창조주의 돌림판 안에서 빚어져 가는 그릇이고 작품인 것이다(오의석, 2013, 예서원: 68)

고 문 헌

- 김서택 (2010). 『깨어지지 않은 언약, 예레미야 강해 2』. 서울: 기독교문사.
- 오의석 (2001). 조각문화의 이해를 위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_____ (1992). '인간 창조의 원형과 그 미래에 대한 조형적 탐색'. 테라코타 개인전 도록. 서울: 토 아트 스페이스 /대구: 맥향화랑
- _____ (2013). "한국 현대미술에 체현(體現)된 로고시즘(Logos-ism)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_____ (2013). "창조주와 창조세계에 대한 예술적 담론" 『예술과 창조적 분별력』 서울: 예서원
- 이성도(1998). "조각 감상의 방법론". 『미술교육』 제8호. 한국미술교육학회.
- Edith Schaeffer(1991). 이상미 역.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Lewis C. S.(2001). Mere Christianity. 이종태 역.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 Mark Hanby(2010). Perceiving the Wheel of God. 김호영 역. 토기장이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순전한 나드.

Read Herbert(2001). 이희숙 역. 『조각이란 무엇인가』.서울: 열화당.
Wolters, Abert M. (1992). 양성만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Zachariasa Rvi K.(2009). Grand Weaver. 이상준 역. 『위대한 장인』 서울: 토기장이.